

#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 전북교육청, 기초학력 정책 개선 자문단 협의회 운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7일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학력향상 지원정책 자문단 협의회를 실시했다. 자문단은 초·중·고교 중 학교현장에서 기초학력 지도를 실천하고 있는 교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기초학력향상 지원정책 자문협의회에서는 2018학년도에 진행되었던 맞춤형학습지원학교, 초등2학년 첫걸음 지원학교 및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보조교사제 등 기초학력정책을 되돌아보고 정책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범 실시되었던 전주교대 예비교원 기초학력보조교사제는 교사의 학습지도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더딤 아동에게는 멘토의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높아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단은 기초학력 정책에서 소외된 학교의 학습더딤아동지도를 위해 맞춤형학습지원학교 지원 정책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학습더딤 아동의 학습향상 정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도 당부했다. 전북교육청은 자문단회의 결과를 2019학년도 기초학력정책에 반영해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맞춤형 지원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가 고창캠퍼스에서 교육생들이 실습한 결과물인 정자를 고창아산초등학교에 기부했다.

##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실태조사 실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는 2018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다음달 17일까지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human.je.go.kr>)를 통해 이뤄진다. 초·중·고 학생용, 교원용으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분야를 클릭 한 뒤 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설문은 크게 ▲학생인권에 대한 의견 ▲학교생활과 관련한 내용 ▲학생인권보장 제도의 인지 여부 ▲아바이트 등 노동인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실태조사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학생인권에 대한 경험과 생각으로 응답하면 된다"면서 "응답한 내용은 통계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드론 창의아카데미 교육 풍성한 결실 맺어

### 공학페스티벌 드론 축구대회 전북대 학생들 '금상' 수상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들이(JS여포팀, 3학년 유인상, 이정연, 신현승, 성웅)이 최근 열린 2018 공학페스티벌 '드론축구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2018 공학페스티벌(2018 E\* Festa)의 세부 행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학교육혁신협의회, 전북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관했으며, 드론을 공으로 삼아 원형 골대에 넣는 스포츠 대회다. 올해 공학페스티벌을 맞아 처음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공과대학 16팀이 참가하여 드론 실력을 겨뤘다. 전북대 학생들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드론을 접하면서 매력을 느껴 함께 이번 대회를 준비해온 것이 결실을 이뤘다.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들이 최근 열린 2018 공학페스티벌 '드론축구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정연(23) 학생은 "대회 준비를 하면서 드론을 처음 접해봤는데 배우기 쉽고 재미있었다"며 "드론 축구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현승(24) 학생은 "평소 드론에 관심이 많고 조종도 할 줄 알아서 처음 대회에 출전해봤는데 우승을 해서 좋았고 다른 드론대회도 나가 볼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지역 대학과 상생하는 아름다운 기부

### 전북대, 한옥 실습 정자 고창 아산초등학교에 기증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가 고창캠퍼스에서 교육생들이 실습한 결과물인 정자를 고창아산초등학교에 기부했다. 이 센터는 매년 4~5개의 한옥전문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로 기부하고 있다. 올해 실습으로 정자를 신속해 고창아산초등학교에 기증했다. 이 정자는 고창캠퍼스의 전문 교수진이 설계하고 전통 목수가 참여해 학생들과 같이 작업한 결과물로 한옥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남해경 한옥기술센터장은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등이 모두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들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다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 정자는 비록 실습물이지만 전문 교수진이 설계하고 전통 목수가 참여해 건축했기 때문에 결코 다른 작품에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 한옥건축이어서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정자를 기증받은 김미순 아산초등학교 교장은 "교원직무 연수로 한옥교육을 받았을 때 봤던 정자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우리 학교에 이렇게 정자가 들어설 수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를 소중히 관리해 우리 학교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멋진 경관을 만들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쉼터로 만들겠다"고 기쁨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가 지난 23일 군산 리버힐관광호텔에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2018 국제학생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 전주대 국제학생 취업 캠프 큰 호응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군산 리버힐관광호텔에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2018 국제학생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 기업의 취업 방

법, 비즈니스 문화 차이 등 정보가 부족한 국제학생들을 위해 취업 정보와 기본 역량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국제학생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도(중국/관광서비스학과) 학생은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또, 배운 내용으로 직접 면접도 보고 피드백도 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며, "많은 국제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참석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대는 캠프 교육과 모의 면접을 통해 선정된 5명의 유학생에게 중국 현지(상해) 진출 한국 기업의 인턴십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도 연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세계한인무역협회 유럽지회 감사패 받아

### 도내 기업 유럽진출 기여 공로

전주대 이호인 총장과 LINC+사업단 주송 단장은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유럽지회(15개 도시 지회장 공동명의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주대 LINC+사업단은 '지역 중소기업 무역 및 취업 상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무역 발전과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유럽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손병권 지회장(영국런던지회)은 "전주대와의 행사를 통해 세계한인경제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전주대와 매칭된 전북지역 40여 개의 기업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지난 8월 영국런던지회와의 협약 체결 이후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유럽과 전주지역이 긴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전주대는 전북과 유럽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